

人文論叢

82권 2호

2025년 5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진단학보의 디지털/인문학

이번 기획의 주제는 ‘진단학보의 디지털/인문학’이다. 『인문논총』 제 78권 제1호(2021년 4월)에 기획 ‘한국 인문학의 디지털적 전환: 아카이브, 데이터, 공동연구’를 편성한 이후 오랜만에 다시 디지털 인문학을 주제로 한 논문들을 묶었다. ‘한국 인문학의 디지털적 전환’에는 홍종욱·김도민·강수연·홍수현의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류인태의 「데이터 기반의 고전 읽기 교육: 『논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문석·김윤진·이은지·송가배·고자연·김지선의 「디지털 인문학과 지식의 공동생산: 위키 플랫폼과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편찬」을 묶어,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번 ‘진단학보의 디지털/인문학’은 이전 성과를 계승하면서, 한국 인문학의 이정표인 『진단학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디지털 인문학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1934년 창립한 진단학회가 간행한 『진단학보』는 한국 인문학이 근대적 학술로 성립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문헌이다. 진단학회의 연구자들은 제국 일본의 아카데미즘과의 긴장 속에서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해방 이후 남과 북으로 분기하여 대한민국과 북한 인문학의 토대를 놓았다. 따라서 『진단학보』에 대한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20세기 한국의 인문학 연구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활용하여 초기 진단학보를 대상으로 삼아 한국 인문학 형성 과정을 분석하려는 연구 기획은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22년부터 2년간 수행한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 연구과제 ‘한국학 형성의 동아시아적 맥락’(연구책임자: 중어중문학과 류준필)의 일환으로, 식민지 시기에 발간된 진단학보에 대해 상세한 기사목록에 더해 각 논문의 각주와 인용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다. 데이터 입력은 중어중문학과 대학원의 이승연, 윤한솔, 공서인, 전신희 님이 담당하였다.

2024년 2월에는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단장: 김흥기)의 지원으로 과제 ‘한국학 생성형 AI 기술개발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책임자: 인문학연구원 홍종욱)을 수행하였다. 이 과제를 통해 『진단학보』 제1권(1934. 11.)~제14권(1941. 5.)에 수록된 논문을 디지털 텍스트로 편찬하였다. 기존의 한국 근대문헌 아카이브가 정형화된 메타데이터와 플레인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에 머물렀던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장절 제목, 본문, 각주 등 논문의 형식 또한 데이터로 편찬하고자 하였다. 한국사, 한국문학 연구자들과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 김지선 님이 궁리한 끝에, 『진단학보』의 문헌적 특징 및 학술사적 특징을 반영하여 온톨로지 및 XML 스키마를 설계하고 구조화된 입력 틀을 시험적으로 개발하였다. 국사학과 대학원의 곽한나, 심현지, 안소연, 최솔, 국어국문학과 문예지, 이지훈, 허민석 님이 입력 틀에 맞춰 원문 및 현대문을 입력하였다.

2024년 6월부터는 인문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집담회 ‘진단학보와 한국학의 형성’(연구책임자: 국어국문학과 박진호)을 진행했다. 집담회에서는 앞선 두 과제의 성과로 구축한 온톨로지, 데이터셋, XML 스키마, 원문 데이터 등을 검토하였다. 인문학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데이터 설계를 보완하고 편찬한 데이터를 정규화하였다. 또한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의 가능성 및 생성형 AI 기반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집담회 성과의 일부는 같은 해 12월 6일에 개최한 인문학연구원 심포지엄 ‘진단학보의 디지털 인문학’을 통해 학계에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토론
1	한국 근대 문헌의 디지털 텍스트 편찬과 그 쟁점	장문석(경희대 국어국문학과)· 허민석(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곽한나(서울대 국사학과)	류인태(전남대 중어중문학과)
2	진단학보 국어학 논문의 참고문헌	허인영(인하대 한국어문학과)	박진호(서울대 국어국문학과)
3	진단학보 디지털 자료의 활용 방안 모색	허수(서울대 역사학부)	류준필(서울대 중어중문학과)
4	근대 한국 지식인 저작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시론	홍종욱(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지선(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전공)	이은수(서울대 철학과)

심포지엄의 논의를 통해 『진단학보』의 데이터셋을 활용한 연구 및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25년 2월에는 인문학연구원 디지털 인문학 특강 ‘진단학보 데이터 처리와 활용’을 개최하였다. 역사학부 허수 님의 강연 ‘진단학보에 관한 형태론적 분석: 주석과 자료 분포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과 박진호 님의 강연 ‘학술지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의 탐색’을 통해 『진단학보』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인문학연구원 집담회 지원 덕분에 『진단학보』 아카이브 설계 및 구축은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 『진단학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데이터 설계 과정은 홍종욱·장문석·류준필의 「한국 근대문헌 디지털 아카이브의 설계: 『진단학보』를 중심으로」(『인문연구』 제110호,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25)로 정리하여 학계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번 『인문논총』의 기획 ‘진단학보의 디지털/인문학’에 논문 세 편을 편성하여, 『진단학보』 아카이브 연구 및 교육 그리고 아카이브 구축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일제 식민지 시기 근대 학술 규범의 형성과 다양성: 『진단학보』 논설 형태에 대한 정량적 분석」(허수)은 『진단학보』 학술지 수록 논설을 형태적 측면에서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고찰하였다. 『진단학보』의 논설 가운

대 59편의 디지털 코퍼스를 DB 형태로 구축하고 비슷한 것끼리 군집화하여 비교함으로써 ‘상세 주석형 학술 논설’의 비중이 전기에 비해 후기에 크게 높아졌음을 밝혔다.

「한국 근대문헌의 디지털 텍스트 편찬과 쟁점: 『진단학보』를 중심으로」(장문석·곽한나·문예지·심현지·안소연·이지훈·최솔·허민석·김지선)는 『진단학보』의 문헌적 특징과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XML 스키마 설계 및 원문 데이터 편찬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단학보』 데이터 설계 및 편찬 과정에서 확인한 과제로 XML 설계의 보완, 현대문 텍스트 변환의 규칙 정립, 편찬 도구의 효율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인문학 연구자들의 관심 및 공동의 논의를 요청하였다.

「『진단학보』 초기 양주동·이승녕의 논문을 통해 본 언어학 지식의 수용」(허인영)은 외국의 언어학 지식이 수용되는 과정과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한국어학이 근대적 학술로서 정립하는 과정을 다양한 근원 및 맥락을 가진 문헌의 교차 및 연결을 통해 제시하였다. 1930년대 『진단학보』의 한국어학 연구는 양주동이 대표하는 고증학적 방식과 이승녕이 대표하는 서구 언어학 이론의 직접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맥락 위에서 성립하였다. 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인문학 형성의 동아시아적 맥락’을 보다 입체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그것을 디지털 인문학 연구방법으로 탐구하는 것은 추후 과제이다.

이번에 『인문논총』에 편성한 기획 ‘진단학보의 디지털/인문학’을 통해 집담회의 성과를 갈무리하여 학계에 보고하는 동시에, 『진단학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연구 기획을 보완 및 발전해갈 예정이다. 연구를 지원해주신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아울러 일련의 연구 기획을 실질적으로 이끈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장문석님께 감사드린다.